7-27-2025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시편 46:1-11
말씀 제목: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피난처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시니, 그 영원한 팔이 아래에 있도다. 그분께서 네 앞에서 그 원수를 쫓아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멸하라.'하시리로다."(신 33:27)

피난처는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이 고난을 피해서 가는 곳을 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진다 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바닷물이 노호하고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있는 피난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에서 건져내실 것이며 그의 진리가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어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재앙도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시 91 편).

마지막 때인 지금,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신대로 이 세상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때가 된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눅 21:25-26)

조만간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에 있는 피난처로 옮기시고 세상에 대 환란 심판이 오게 될 때 이 세상은 더 이상 피난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 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하더라."(계 6:12-17)

지금 이 땅에는 더 이상 몸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요 14:1-4)

예수께서는 때가 차게 될 때에 자신의 제자들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 환란 심판이 오기 전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피난처로 옮기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시편 46 편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가게 되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강이 있으니, 그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막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이른 아침에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격노하고 나라들이 요동하였으나 주께서 음성을 내시니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시 46:4-7)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 피난처로 옮기시고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자신의 왕국을 지상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활을 꺾고 창을 두 동강내시며 병거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가만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 내가 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지상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나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시 46:9-11)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과 그들이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벧후 3:3-9)

그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불로 하늘과 땅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만드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그야말로 영원한 피난처가 되실 것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자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 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벧수 3:10-14)

아멘! 할렐루야!